

싱가폴도 전력요금 인상 문제화

전력요금 10% 상승에 화학기업 부담가중 ... 투자거점 매력 감소

싱가폴 Jurong섬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공업계에서 코스트 증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DB(경제개발청) 등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 임대료 인하나 임금억제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하락추세에 있던 전력요금이 한꺼번에 10% 인상되면서 부담이 대형 플랜트를 가동하는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럽 및 미국 화학기업 중에는 일부 생산설비 이전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투자거점으로서 싱가포르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싱가폴에서는 Jurong섬을 중심으로 화학공업 부지 개발이 추진돼 중국이나 ASEAN 시장의 수출거점으로 석유화학 투자가 진행됐다. 이미 에틸렌 크래커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생산능력이 180만톤을 넘어 ASEAN 유수의 석유화학기지이다.

싱가폴은 2003년 화학공업 생산이 호조를 보인 것이 제조부문의 GDP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제조업의 25%를 화학공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 이미 도달했다.

싱가폴은 산업계를 배려하는 정부, 앞선 인프라 개발, 물류 합리화의 강점 등을 배경으로 이제까지 Jurong섬을 중심으로 석유화학공업 투자가 활발히 전개돼 왔으나 거대시장을 가진 중국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겹쳐 2000년 이후 Jurong섬의 플랜트 건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Jurong섬의 생산설비 신설은 Sumitomo Chemical Singapore의 MMA Monomer 8만톤 뿐으로 예전의 건설붐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도 호조 사이클에 들어갔으며 중국시장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차기투자가 검토되고 있으나, 싱가포르에서는 대형 에틸렌 크래커의 사업타당성 검토만이 잇따를 뿐 다른 투자 움직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EDB가 중심이 돼 Jurong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력요금이 대폭 인상돼 화학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싱가폴에서는 2년 전 전력요금의 자유화로 요금이 20% 인하돼 전반적으로 비용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그러나 새로운 가격시스템의 도입으로 대형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의 여파가 미치면서 전력요금은 이전에 비해 10% 상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화학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싱가폴에서는 미래투자를 고려해 발전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30% 내외의 과잉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선행투자 부담이 전력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럽 및 미국 화학기업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가동을 중지하고 해외로 생산설비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10>